베어링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[USD](채권-재간접형)

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-4961099호 (2025.11.04~2026.11.03)

펀드 목적 및 전략

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입의 증대 및 자본 이득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.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 "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(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)"는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. 또한, 신탁자산의 50% 이상을 ESG(환경, 사회, 기업지배구조)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.



- * 최초 설정일이 2025.03.28인 Class C 수익률 기준입니다.
- * 운용성과, 수익률 그래프, 누적 수익률의 성과는 세전 수익률로 미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
- 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기간별 수익률(%)						
구분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3년	설정이후
Class A	0.10	-	-	-	-	0.10
Class C	0.02	1.54	4.61	-	-	3.62
ВМ	0.25	2.04	5.60	-	-	5.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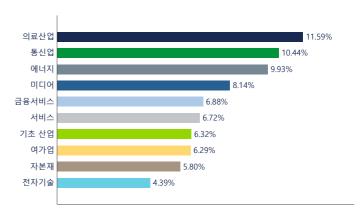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2025년 10월 31일

상위 10개 보유 종목	
종목	구성비율(%)
Charter Communications Inc.	1.82
LifePoint Health	1.81
Bausch Health Companies Inc.	1.50
Radiology Partners	1.50
EchoStar	1.43
Herbalife Ltd.	1.30
Uniti Group Inc.	1.23
Regal Rexnord Corporation (fka Regal-Beloit Corporation)	1.18
Team Health	1.16
PRA Group	1.07

* 보유비중은 2025.09.30 기준입니다.

상위 10개 업종별 보유 비중



* 업종별 보유 비중은 2025.09.30 기준입니다.

지역별 보유 비중			
지역	구성비율(%)		
북아메리카	67.45		
유럽	25.92		
유동성자산	4.26		
기타 지역	1.22		
아시아태평양	1.16		

* 지역별 보유 비중은 2025.09.30 기준입니다.

* 보유비중은 2025.09.30 기준입니다.

신용등급별 보유 비중	
신용등급	구성비율(%)
BBB	6.78
ВВ	36.37
В	40.12
CCC 이하	10.10
Not Rated	2.08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※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・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※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베어링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[USD](채권-재간접형)



2025년 10월 31일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-4961099호 (2025.11.04~2026.11.03)

펀드개요			
• 순자산*	10693.33달러		
기준가	10.0101달러		
• 펀드설정일	2025.10.01		
• 신탁업자	신한은행		
• 합성총보수·비용(연,%)			
종류 A: 2.082 종류 C: 2.692	(운용:0.15,판매:0.35,신탁/사무:0.06기타:1.522) (운용:0.15,판매:0.8,신탁/사무:0.06기타:1.682)		
• 투자위험등급	1등급(매우높은위험)		
• 선취판매수수료			
• 후취판매수수료			
• 환매수수료	없음		
• 환매대금지급기준	17시 이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		
* 근데데 급시답기판	17시 경과 후 :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		
• 벤치마크	ICE BofA Non-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- TotalReturnHedgedUSD(T-1) X 95% + MMI_CALL X 5%		
• 분배기준일	매월 20일,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 업일		
• 분배금 지급일	분배금은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지급		
※합성보수비용은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			

※설정 1년 미만인 클래스의 경우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

※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:

※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율은 추정치를 사용하였기에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 할수 있으며 설정 1년 미만의 펀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
투자자 유의사항

- ㆍ이 운용보고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,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
- ·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- ·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자료의 정확성, 완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•보고서의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내용의 무단복사, 사진복사 또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.
-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·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,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
- 연금펀드의 경우, 중도해지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, 해지 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의 기준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하이일드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,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·자산, 주요종목, 국가별 비중은 운용펀드 내 비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).
- 해당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따라서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, 베어링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
- •월지급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월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.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부터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이익금이 분배금 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됩니다. 따라서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

BARINGS.COM 베어링자산운용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※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・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※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